



서울 변두리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당신, 오늘.. 알죠?"

이른 아침, 아내의 머리 위에 옥수수가 담긴 함지를 올려 주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일찍 끝낼 테니 걱정 말라고"

남편은 시장통에서 손수레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짐꾼이었고, 아내는 옥수수를 찌서 시장에 내다 파는 행상이었습니다.

"글쎄, 찹옥수수라니까요. 아주 맛있어요."

초여름 뉘약벌 아래 좌판을 벌이고 옥수수를 파는 일은 참으로 고단했지만 아내는 한푼 두푼 돈 모으는 재미로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날보다 일찍 장사를 끝낸 뒤 남편을 위해 선물을 사고 고기며 찬거리를 한아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아휴, 벌써 몇 번째야. 큰일났네."

많은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올라타려는 아내를 버스는 번번이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하는 수 없이 집까지 두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설움이 복받쳐 눈물이 주르륵 흘러 내렸습니다.

한편, 남편은 아내가 밤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속상했다가 화가 났다가 끝내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얼른 손수레를 끌고 달려가 짐부터 받아 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늦었어?"

왜 늦었냐는 다그침에 아내는 눈물을 펄펄 쏟으며 짐이 많아서 차를 탈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가여운 아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아내를 번쩍 안아 손수레에 태웠습니다.

"자! 여왕님,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남편이 끄는 낡은 손수레.

그것은 통통 부은 발만큼 마음이 부어 있던 아내에게 세상 그 어떤 차보다 안락한 자가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자가용도 있는데 정작 없어진 것이 사랑은 아닌지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5:17)"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촛불▶ 어느 중학교 음악실기 시험

어느 중학교 학기말 음악 실기시험. 지정곡은 금수현 곡의 "그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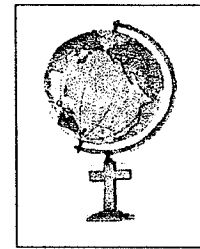
모두들 긴장한 채로 기다리다 자기 번호가 불러 지면 순서대로 불렀다.

그러다 문제의 A 학생차례, 시작은 아주 잘했는데 무척 긴장한 상태인지라.....

"> 세모시 옥색치마 금박물린 저 데앵~기가~~~~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3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8월 18일
☎ 520-9464.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누군가



김형석 교수가 미국에 체류하던 시절에 유엔 본부를 견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인 만큼 큰 기대를 가지고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마침 안전보장 이사회의 소집이 공고되어 있었고, 정해진 시간 10분 전부터 회의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었어도 제시간에 출석한 대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려 한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하나 둘 씩 자리를 잡고 앉았고, 회의에 임하는 자세는 더욱 엉망이어서 진지한 구석이라고 전혀 없었습니다. 각자의 주장을 끝내고 나면 다른 대표의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탄전을 부리거나 잡담을 하다가는 회의장을 빠져 나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맡겨도 좋을것인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초대받아 간 한 농부의 집 식탁에 앉았습니다. 조촐하지만 단란한 식탁에 마주 앉아서 농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김교수의 나라인 한국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온 세계가 평화 가운데서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 교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엔 본부에서의 답답했던 가슴이 한 농부의 기도를 통하여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김교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평화는 유엔이 지키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드리는 한 농부의 진실어린 기도가 있어서 세계의 평화는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도 드러내지 않은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 8:26)"

엄마가 딸에게
운전할 땐 색안경을 써라
그러나 사람을 볼땐
색안경을 끼고 보지말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터넷의 생명은
많은 정보와 빠른 속도다
주의 백성의 생명은
깊은 말씀과 즉각적인 순종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Calvary" 다 갈 이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도 자
Proclaim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찬 송 29장 다 갈 이
Hymn

*성 시 교 독 23(시 98)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찬 송 358 장 다 갈 이
Hymn

기 도 김중건 장로
Prayer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3:22-30(신 118) 인도 자
Scripture Reading

성가대 찬양 나무십자가성가대
Choir

설 교 '좁은 문, 좁은 길' 김성국 목사
Sermon

찬 송 359장 연 주 자
Hymn

헌 금 기 도 인도 자
Offering Pray

응 답 송 다 갈 이
Response Song (1절:김중원 집사 가족, 2절:다같이)

축 도 김성국 목사
Benediction

◆8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안 내 위 원	가족찬송	Tea Time
4	김교섭	이지영	박병민.이기중	김중건	김현수.남형진
11	정덕수	정희자	박상옥.이금선	김종우	민광호.박기원
18	김중건	최기향	박정자.정희자	김종원	박병민.박상옥
25	이광희	최재학	양경배.김동숙	김현수	박일영.사카시다

일자	주 일	주 중 모 임
11	광복기념주일 식사천교주일	김동호 목사 1일집회(1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3) 결식자 식사봉사(17)
18		약속의 아비 기도회(20) 항존직 기도회(23)
25	이삭줍기주일	여선교회. 당회(26)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 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듣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6시

◀어제, 남선교회에서는 교회당 청소를, 여선교회에서는 결식자 급식봉사를 하였습니 다. 제 키 키워가던 처마끝 고드름을 뚝 따서 한입 베어물 고, 칼싸움 흉내 내다 부서져도 아쉬움 없었지만 여자아이들 고무줄 놀이만큼은 그냥 비켜가지 못했던 한 해 겨울도 집 안청소며 옷가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봄을 맞았습니다. 남정 네들의 청소후 아낙들의 소쿠리에 담아낸 점심으로 배부른 봄의 문턱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약속의 아비' 기도회: 화요일(20) 저녁 7:30. 교회

2. '항존직 기도회': 금요일(23일) 저녁 7:30

3. 다음주일은 이삭줍기 봉헌주일: 한달간 모은 Silver Coin으로 동남아 2명의 어린 이를 돕습니다

4. 수요일예배: "경배와 찬양" 팀과 함께하는 은혜의 찬양, 출애굽 광야 40년에 보여주 신 하나님의 선리와 백성들의 실패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30

5. 금요일새벽기도회: 내 가족, 부모형제, 교회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새 벽 미명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6:00 am

6.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김동호 목사 1일 사경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교우들의 모습은 완벽한 Team Work 이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까지는 미처 느끼지 못한 이와같은 숨은 수고들 이 있었음을 이번에 새삼 깨닫습니다.(권용일, 이지영 집사 부부에게는 주례 목사님을 만 나게 되어 더욱 기쁜 집회였습니다)

*이번 집회 설교대일이 필요하신 교우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이지영 집사

7. 전병주 전도사 이사: 오는 금요일(23일) 10 B Felicity Pl. Unsworth. ☎443-4002

8. "살롬과 의투스와 함께하는 수요일예배(예고)

*<일시> 9월 4일(수) 수요일예배 7:30 pm <장소> 본당

♡ 마음 읽기

수채화처럼 투명한 파란 나뭇잎들이 반짝이는 오월의 어느 날,

엄마들의 자식 자랑이 한창입니다.

"우리 개똥이는 벌써 한글을 읽어요."

"우리 말뚝이는 영어도 읽는데...."

"우리 콩돌이는 100까지 셀 수 있어요."

이때 조용히 듣기만 하던 바우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바우는 아직 국어도 영어도 못 읽지만 엄마 마음을 잘 읽어요."

「이웃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공부가 먼저겠지요」

